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7호 2026년 4월 19일(가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부활 제3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사도행전 2,14.22-33 ▶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2독서 : 베드로 1서 1,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13-35
--	---

성가 ▶ 입당: 128 ▶ 봉헌: 342, 212 ▶ 성체: 138 ▶ 파견: 135



사목공지

- ① 4월 19일/2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4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4월 봉성체 안내
4월 봉성체는 4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4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4월 19일~25일)
- ⑤ 매월 넷째 주 4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 ⑥ 성지순례 안내: 4월 26일(일) ~ 5월 1일(금) 평일미사 없음

특별공지

[하와이 코나 로우(Kona Low) 폭풍 피해 복구 특별 모금]

코나 로우 폭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와이 여러 본당과 가톨릭 학교 복구를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합니다. 하와이 가톨릭 커뮤니티 재단을 통한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 참여 링크 (Hawaii Catholic Community Foundation)

<https://www.hawaiicatholiccommunityfoundation.org/support-flood-relief-efforts/>



구역 및 단체

- ①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4월 1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② 연령회 모임
일시: 4월 1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③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5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 ④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 ⑤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 ⑥ 성모회 모임
일시: 4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⑦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5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제10차 성령 쇄신 세미나 안내문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 5월 24일(일) 5월 22일(금): 16:00-22:00, 5월 23일(토): 10:00-22:00 5월 24일(일): 12:00-19:00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신자분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지도신부님	김현우(바오로) 신부님 (인천교구 해양사목국 부국장)
대상	모든 교우분 (참가비 1인당 \$70)
문의	미사 전,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타공지

- ※ 성당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이살린 바울라
- ※ 주일학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장해경 소화데레사
- ※ 사무실 공지사항
4월14일(화) ~ 4월27일(월) 사무실 휴무입니다.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4월 11일 / 4월 12일: \$11,031.2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2명
	주일헌금 \$3,403	교무금 \$5,580.20	특별헌금 \$2,048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 (9) 말씀 전례 중 강론 (1)

복음 봉독 후, 사제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미사 전례는 모든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며, 나아가 하느님을 흠송하고 자신의 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론 역시, 미사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 부분으로 걸도록 도와주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은 강론에 대한 지침을 전해 줍니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크게 권장된다. 강론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 강론을 할 때는 거행하는 신비나 듣는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에서는 강론에 대해서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성서적이고, 전례적이며, 복음선포적이고, 대화적이며, 예언적이다. 이는 강론을 준비하는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론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복음을 풀이하고 선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전례에 대한 의미를 해설하거나, 공동체의 대화 시간이며,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강론 시간을 통해 전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강론을 평가하거나, 나아가 전례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점은 “강론”이 지닌 목적에 그릇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을 살펴봅시다.

“...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날에도, 특히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모이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론 다음에는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의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의 강론은 생략할 수 없고, 다른 날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합니다. 또한 강론 이후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느님 백성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례적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 부활 3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깊은 실망과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희망의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이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가 신앙 속에서 절망과 혼란을 경험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걸으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는 외적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실패와 절망을 단정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타오르고, 그들은 비로소 내적 확신을 얻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라고 초대하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성체성사와 미사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경험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지만, 그 체험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쁨과 확신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엠마오로 향하며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 속에서 물러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초대하며, 마음이 타오르고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타오르며 삶이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가 만난 주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p>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p> <p>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p>	<p style="text-align: center;">최 니콜 부동산</p> <p>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p>	<p style="text-align: center;">메디케어 보험</p> <p>(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p>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 문의</p> <p>사무실 808-422-1010</p>	<p style="text-align: center;">A'ALA Meat & Seafood Inc</p> <p>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p>	<p style="text-align: center;">보나 최 부동산</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p>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p> </div>